전법 일기

한 거사님의 노상방뇨 '완벽한 타인' 되짚다

2021년 여름, 부산 영도 해련사에서 탑을 쌓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귀한 경주석을 어렵게 구해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본떠 만들었는데, 소실된 상륜부를 재현하여 덧붙이다 보니 탑의 높이는 10m 근처에 이르렀다. 긴 기다림 끝에 모신지라 탑만 봐도 배가 부르던 시절이었다.

그날은 탑 공사를 마친 지 얼마 안 되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약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탑 근처에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탑 주변을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낯선 광경은 아니었는데, 누군가 우산도 쓰지 않고 엉거주춤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70대로 보이는 거사님 한 분이 탑 옆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거사님을 추궁했다. 절에 오신 분이 어떻게 성스러운 탑에 이럴 수가 있냐고 다그쳤다. 거사님은 당황하여 소변을 끊지 못하고 뒤돌아본 채로 웅얼거리며 뭔가 대답했지만, 내 귀에 들리지는 않았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수행자이고 스님이지만, 절을 책임지고 있는 주지로서 이런 행동에는 화를 내야 하리라. 내 목소리는 드물게 높고 거칠었다.

원주보살에게 쓴소리를 하러 종무소에 들어가니 한 보살님이 기도접수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 차 안에 혼자 기다리시니 서둘러 접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순간 이런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가 불편해 늘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도무지 마려운 소변을 어떻게 하질 못했을 것이다. 차에서 종무소까지는 불편한 걸음으로 꽤 먼 거리였고, 마침 옆에 큰 돌기둥이 있었으니 딸을 번거롭게 할 게 아니라 몸을 숨겨 몰래 볼일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필 스님에게 그 장면을 들켰으니 부끄럽고 난감했을 터.

나는 종무소에서 나와 차 뒷좌석 창문을 노크했다. 죄인 같은 얼굴을 한 거사님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다.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고 너그럽지 못하게 대한 것에 죄송스럽다고. 시시비비를 떠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다. 거사님도 젖은 목소리로 사죄하고 머리를 숙였다. 탑 옆에는 미안한 얼굴뿐인 두 남자가 있었고, 이후로 둘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내 마음 속 탑은 주지로서 잘살아왔다는 명료한 증거물이었던 것 같다. 돌덩어리에 불과한 탑을 받치고 있었던 것은 땅처럼 견고한 나의 애정과 집착이었을 것이다. 마음속에 그런 어리석음이 가득했으니, 상대에게도 무언가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여유와 관용이 들어설 여지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누구나 완벽한 타인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잠시 화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인내와, 상대방을 이해해보려는 자비와, 작은 잘못은 용서하는 대범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갖춰져 있는 재료들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롭게 탑을 쌓고 있다. 인내와 자비와 관용의 부재(部材)를 쌓아 올린 이 탑이, 훨씬 견고하고 아름다울 것을 기대하며.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④ 동물 천도에 대한 단상

동물 천도, 생태적 삶으로 가는 지혜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가 심혈을 기울인 〈무문관〉(無門關)의 두 번째 공안은 '백장야호'(百丈野狐)이다. 뒷동산 바위굴에서 찾아낸 여우의 시체를 거두어 준다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인과(因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인과에 대한 불락(不落)과 불매(不昧) 사이의 거리를 확인시킨 사건이다. 다른 맥락으로 이 공안을 활용한다면, 동물천도를 통한 생태적 시각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 황벽(黃蘗)으로부터 뺨을 맞은 백장(百丈)은 다음과 같은 '한번 구른 말(一轉語)'을 한다.

"달마의 수염은 붉다(胡鬚赤)고 말하려 했더니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가 여기에 있구나!" (胡鬚赤更有赤鬚胡)

'달마의 수염은 붉다(胡鬚赤)'는 말을 뒤바꾸어버린 일전어(一轉語)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는 담론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다. 철학적 질문은 존재론에서 실존으로 일전한 후, 타자(他者) 담론으로 변경됐다. 낯선 존재인 타자에 대한 질문은 그들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로 이어졌고, 인권(人權) 논의는 동물의 권리 즉 동물권(動物權)으로 확장됐다.

집단사육하는 가축과 구별하며, 애완동물은 반려 동물로 불린다. 반려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셈이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펫 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의 영가천도를 하는 사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축생법당'으로 알려진 천룡정사를 필두로 서울의 봉은사와 국제선센터, 강릉의 현덕사 등이다. 얼마전 심곡암에서는 동물은 물론 식물을 포함하여 '제1회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하였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데 동물 천도라니 실소말라
동물천도 의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웃지말라
그대가 자신을 만나는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물천도는 동물권과 관련지어 생태적 삶을 질문하며, 환경복지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처한 문제의 본질로 인도한다.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COVID 19' 등의 문제는 동물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의 변종에 의해 동물과 인류 종간의 벽을 넘어 감염이 이루어진 질병들이다. 즉 동물들에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은 그 일차적 원인을 동물에게 귀책시킴으로써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단 살처분이 이루어진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일전해 본다면, 근본 책임은 환경을 망치고 생태를 위협하여 기후위기를 부른 우리들에게 있다. 무문은 벽력같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현대인들에게 한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여우의 몸을 받아야 했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는데 왜 여우의 몸을 벗어났는가?
(不落因果 爲甚墮野狐 不昧因果 爲甚脫野狐)

절집에 동물위패를 모신 영단이 있다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다. 사람 살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동물천도라니 하며 실소하지 말 일이다. 동물천도 의례가 합리적 생각이 아니라고 비웃을 일이 아니다. 어쩌면 이전 여러 생을 거쳐온 그대가 시방 자신을 만나는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히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비심의 발현이며, 생태적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불교, '리멤버 4·16!'

2014년 4월 16일. 이날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남겼다. 세월호 총 탑승객 476명 중 304명(미수습자 포함)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던 한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사회 부조리의 끝판왕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는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 일반인에게 돌아갔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공업(共業)이며,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해야 한다.

10년 전 4월 16일, 당시 불교계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봉축점등식을 개최했고, 그해 연등회의 연등행렬은 화려한 장엄등과 행렬등 대신 하얀 만장과 연등이 채웠다. 당시 하얀 연등의 물결은 희생자에 대한 극락왕생 발원과 통렬한 참회가 담겨있었다.

10년이 지난 현재, 불교계가 들었던 하얀 연등과 만장은 빛이 바랜 것 같다. 개신교, 가톨릭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리기 위한 미사와 예배 등의 추모행사를 전국에서 열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 경우 추모기간을 정해 전국교구에서 미사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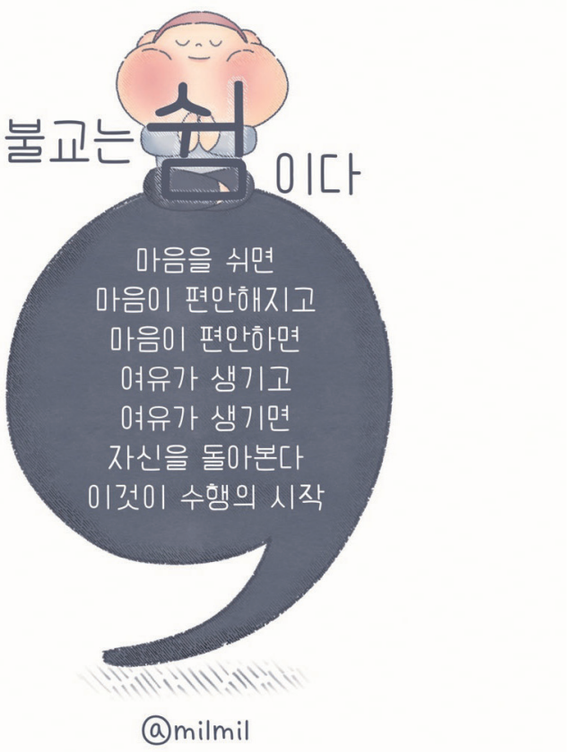
반면 불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13일 팽목항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해상법회를 봉행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추모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1일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애도메시지가 나온다는 소식도 확인된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바래진 기억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친한 친구를,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지속되는 아픔이다. 불교계에 요란한 추도의식을 열자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오롯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고 함께 기억해 나가자는 것이다. 불교의 자비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묻고 싶다. 지금의 불교는 그들의 아픔을 듣고 있느냐고. 들을 준비는 돼 있냐고. 'Remember 4·16'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